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1576년(선조 10)에 펴낸 주역학서이다.

〈지난호에 이어〉
오징은 구설을 인용하여 이러한 해석을 반대하고, 육오는 언덕과 동산에 있는 현자로 상구인 군주로부터 폐백을 보내 초빙하는 예우를 받으며, ‘잔잔’은 많이 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내가 생각건대, 이 세 설이 모두 타당치 않으므로 구설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상구는 이른바 ‘강이 올라 유를 문식’하는 것으로 지위가 없는 곳에 거처하니 마치 어진 덕을 지닌 사람이 그의 덕으로 왕의 교화를 문식할 수 있는 데도 언덕과 동산에 은둔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육오는 유(柔)로써 높은 지위에 거하여 강의 꾸밈을 받으니 인군(人君)이 현자를 구하여 자신을 돕게 하고 태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과 같다.

뫼은 비단이 잔잔하다’는 것은 인군이 현자에 대해 공경과 예를 다해 가까이 해야 하고 감히 현자를 오라가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周)문왕(文왕)이 예망(呂望)을 모셔 오고 촉나라 선주가 공명(孔明)을 찾아보았던 것처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뫼은 비단을 보내 초빙하고 예와 공경이 지극하지 않으며 정성된 뜻이 알다면 인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자를 얻고 그를 등용하여 다스림을 완성한다면 끝내는 길함을 얻게 된다.

‘잔잔’은 천천(錢錢)과 같으니 뫼은 비단이 짝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런 마음 가짐이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생각건대 이 폐가 비고 문체는 있으나 그 실질이 없으므로 정성스런 마음가짐이 아직 지극하지 않은 상이 된다. [정전]에서 스스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색하다고 본다 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하여 스스로 하는 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뜻과 맞지 않다. 오징은 ‘잔잔’을 많은 비단 묶음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무슨 인색함이 있었는가? 또 높은 자리에 거한 육오를 신하로 보고 지위가 없는 상구를 군주로 본 것은 합당치 않다. 비록 양이 군주고 음이 신하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될 듯하다. ‘본의’는 육오를 언덕과 동산으로 보았는데, 아마도 산을 뜻하는 간괘의 맨 윗자리가 언덕과 동산이어서 할 듯하다. 이(頤)괘의 ‘언덕에서’라는 것 역시 간(艮)의 맨 윗자리를 가리킨다.

상구(上九) 희게 꾸미니 허물이 없으리라 [白賁, 无咎].

현자는 지위 없이 은둔하여 산림에 머물며 흰옷을 입고 스스로를 지키며 평소의 뜻을 실천하면서 번치 않는 사람이므로 ‘희게 꾸미는 것’이 된다. 덕과 도를 마음에 품고 초빙하기를 기다리며 가서 구하지 않으니 무슨 허물이 있었는가? 그 때문에 여유롭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 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뜻을 얻는다’는 말은 ‘맹자’에서 ‘내가 뜻을 얻어도.’라고 할 때의 득지(得志)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위를 얻어 자기의 뜻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상구가 비록 지위가 없는 곳에 거하나 끝내는 초빙에 응해 일어나 지위를 얻어 도를 행함으로써 천하를 아울러 선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육오의 ‘상전’에 “기쁨이 있다”고 한 것은 육오가 상구를 신하로 얻어 기쁜 것이고, 상구의 ‘상전’에 “뜻을 얻었다”고 한 것은 상구가 육오의 초빙에 응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통한다.

박(剝)

육이(六二) ‘상전(象傳), ‘상의 편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剝床以辨，未有與也).

육이가 비록 음이 자라나는 때에 있기는 하지만 위로 응할 짝이 없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직 심하지 않으므로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음을 억제하려는 이유에서이다. 후자는 육이가 가운데 자리하여 위아래 다섯음과 함께 양 하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어찌 짝이 없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는 정녕 다섯 음이 양 하나를 공동

으로 무너뜨리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응(應)이 없으므로 상인께서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고 세력이 약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적어 함께 할 이가 없는 상으로 보았다. 육삼이 상구에 응하면 또 사악한 무리를 버리고 바른 무리를 따른다고 여겼으니 앙을 치켜세우고 음을 억제하려는 의도 아닌 것이 없다.

복(復)

육사(六四) 가운데 가다가 홀로 회복한다(中行獨復).

사(四)는 중이 아닌데도 ‘가운데 간다’고 본 것은 왜인가? 사(四)는 다섯음의 가운데 있고, 아래위에 각각 두 개의 음이 있어 풍류와 함께 움직이게 되지만 사만은 짝이 없고 아래로 초양에 응하므로 그 무리를 벗어나 홀로 회복하는 것이 된다.

상육(上六) 회복하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니 흉하다.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따른다. 군사를 움직이면 마침내 크게 패해서 그 나라의 군주가 흉하게 되어 10년이 되어도 가지 못하리라(迷復凶。有災喪，用行師，終有大敗，以其國君凶，至于十年，不克征).

내가 생각건대, 정·주는 모두 ‘회복하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니 흉하다’는 ‘끝끝내 갈피를 잡지 못하여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오징은 그것을 그대로 하였다. 두 사람이 ‘불(不)’자를 그 사이에 보충하여 넣었으므로 오징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징 자신은 ‘길’을 잘 모르고 가다가 돌아오면 가고 오는 것이 모두 잘못된다’라고 보았으니 이 또한 경전의 의미를 잃었다. ‘회복한다’는 것은 선(善)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미 회복하였다면 다시 무슨 흉이 있었는가? ‘미복’은 ‘회복함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끝에 이르러 선을 회복함에 갈피를 잡지 못하니 이것이 ‘끝끝내 갈피를 잡지 못하여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기고 (63회)

특기기고 (63회)는 2015년 5월 1일 (금요일)에

출간되었습니다.
특기기고 (63회)는 2015년 5월 1일 (금요일)에



내가 장성해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기둥이 되길 기대하시면서 하신 훈시였고, 뒷사람을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울바르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도덕성을 강조하셨다. 할아버님의 이 같은 훈시 덕분인지, 학교생활에서 다른 과목은 성적이 별로였지만, 국어와 국사는 항상 최상의 성적을 유지했었고 지금도 꽤 자신이 있는 부분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성적은 상대적인 것이라 할아버님의 말씀을 잘 이행해 왔는지는 제3자가 판단해 줘야 하겠으므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님이 무서웠고 어린 마음에 어떨 때는 되기도 하였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님의 “사랑의 회초리” 덕분에 아직도 훈시를 하셨던 말씀을 생활신조로 삼고서 나의 지나는 생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할아버님이 그저 존경스럽고 고맙고 또한 매우 자랑스럽다. 오늘도 할아버님이 원하셨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 되돌아보아야겠다.

이와 같은 권 준 장군 장손자의 훌륭한 할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은, 권 장군이 이룩한 국가와 민족에 훈공(勳功)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일가(一族)와 일족(一族)들에게도 끼친 커다란 교훈과 유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권 준 장군이 50사단을 창단하고 사단 장으로서, 제37주년 3·1절 기념 축사(발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峻) 장군<15>

▣ 권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책을 직접 쓰신 것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애국애족과 민족독립 및 조국광복과 대한민국 국군창설, 그리고 남북통일의 염원과 그 정신을 되새겨 본다. 크게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면관계상 먼저 2개항을 게재한다.

기념사에서 읽어보며 특기할 사항은 거족적인 기미독립만세운동인 3·1절을 권준 장군은 ‘3·1절 대학명 기념일’로, 1894년 청일전쟁을 ‘중일전쟁’으로 명명한 점이다. 여기에서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문’과 함께 의열단 창단회원과 열혈독립운동가 및 중국군 장군으로서 항일전, 대한민국의 광복군과 중경 임시정부 차관, 대한민국의 국군의 건군 주역인 권 준 장군의 문무겸전(文武兼全)의 훌륭한고 의연한 나라 사랑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3·1절 기념사〉 친애하는 청년장병여러분! 오늘 제37주년 3·1절 대학명 기념일을 맞이하니 실로 감개무량한 마음을 이루다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거 3·1절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부터 63년 전인 갑오년에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 가정하고 갑오년 중일전쟁을 야기한 결과 중국은 패배하고 왜놈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비로소 중국과 주중관계를 탈피하고 그 다음 해 을미년에 독립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개칭한 후 왜놈들이 우리나라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점차로 잠식하다가 1904년에 러일전쟁을 끝마치고 1905년에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한 관계로 우리나라에는 비로소 왜놈의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이등막문이라는 높이 초대 일본 통감으로 서울에 부임하였고 1907년에는 소위 ‘정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내장-외교-재정-교육-철도 등등

의 권한을 왜놈에게 박탈당한 소치로 우리나라 정부는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왜놈의 속국처럼 되었다가 1910 경술년에 강제로 소위 ‘한일합방’ 하에서 우리민족은 완전히 왜놈의 노예가 되어 그놈들의 잔학무도한 무단정치 하에서 식민지의 노예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그놈들의 탄압-투옥-살육 등등의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재산까지 빼앗기게 되어서 우리민족은 바다를 중심으로 안과 밖으로 방황하는 망국민이 되었소. 이것이 곧 망국의 시련인 것은 장병제군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경술년 소위 ‘한일합방’이 실행된 뒤에 조국을 잃고 해외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중국 미주 러시아영 및 기타 각국에서 불철주야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암중합약 하던 중 천재일우의 호기인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평화를 위한 시안 중에 ‘민족자결’이라는 조문이 선포되자 국내에서는 광무황제가 승하하심에 따라 전 국민의 인심이 흥룡할 때에 즉 종교단체, 학계, 사회단체 및 유림의 지도자 중에서 손병희, 김선주, 오세창, 권준성 등 제씨 33인이 서울에서 극비리에 집회하여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려고 계획 중이고, 상해에서는 대한 청년당 김규식박사, 여운형, 장덕수, 서병호 등 제씨가 집회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정한 후 김규식 박사는 파리 강화회의 출석 차 파리에, 장덕수는 일본으로, 여운형은 러시아영으로, 서병호는 국내로 각각 파견하여 내외 호응의 대 활동을 기하였으며, 미주에서는 대한국민회 회장 안창호 선생이 현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권유하여 독립운동에 맹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3·1절 대 혁명운동을 발원시킨 당시 국내외의 정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4)

논 어 해 설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而)

제12장

공자가 조심하는 것은 재계(齋戒)와 전쟁(戰爭)과 질병(疾病)이었다.

[원문]
子曰所慎은 齊戰疾이러시다.[자왈소신은 재전질이러시다.]
[이해]
재계(齋戒)는 제사를 받들기 위해 신명을 지성으로 받들기 위한 준비이고,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걸리고 조국의 존망(存亡)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며 질병은 내 몸이 삶과 죽음을 고통과 평강이 달린 것이므로 공자가 신중하였다는 말이다.

제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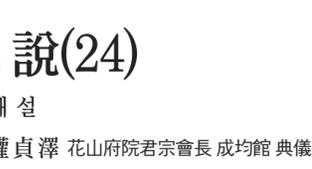
공자(孔子)가 제(齊)나라에 가 있을 때 적에 소악(韶樂)을 듣고는 석 달 동안 그 기 맛을 모르고 식사하였는데, 공자가 말하였다. “음악이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렀을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원문]
自在齊聞韶하고 三月을 不知肉味하사 曰 不圖爲樂之至於斯也러라.[자제제문소하시고 삼월을 불화육미하사 알 불도위락 지지어사어러라.]
[이해]

소(韶)는 춘(舜)임금의 음악인데 춘추 시대에는 진(陳)나라가 순의 후예였고 진공자(陳公子) 완이 제나라로 망명했기 때문에 소가 보존되었다가 공자가 제에서 순의 음악을 듣게 된 것이다. 공자는 여기에 매료되어 소악을 배웠고 음악이 극치에 이르러 진진진미(陳善盡美)를 다하였다 평한 것이다.

제14장

염유가 말하였다. “선생님이 위나라 임금을 도와주실까?” 자공이 말하였다. “글쎄 내가 여주어 보겠네.”공자의 처서에 들어가서 자공이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



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의 현인이었다.”자공이 말하기를. “원랑 하였을까요?”공자가 말하였다. “인자함을 축하여 인자함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했겠느냐.”자공이 나와서 말하였다. “선생님은 위나라 임금을 돕지 않음 겠세.”

[원문]
冉有曰 夫子爲衛君乎 子公曰 諾함을 吾將馬之하리라 入曰 伯史放齊는 何人也 니이까 曰 古之賢人也니라 曰 怨乎릿까 曰 求仁而得仁이거니 又何怨이리오 出曰 夫子不爲也시러라.[염유왈 부자유위군호자공왈 나함을 오장문지하리라 입말 백이숙제는 하인아니이까 왈 고지현인아니라 왈 원호릿까 왈 구인이특인이거니 우하원이리오 출왈 부자불위야시러라.]

[이해]
이 문단은 위 영공의 세자 괴 외가 영공의 부인 남자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송으로 망명했고 영공이 죽고서도 공자영[公子鄂]이 군위계승을 거절하자 괴 외의 아들 첩(嬖)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그가 곧 출공[出公]이다. 뒤 날 고국군의 두 왕자로 서로 왕위 계승을 사양하다 무왕이 주(紂)를 공벌할 때 간하다가 듣지 않자 불의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노라 수양산(水陽山)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현인들을 빌어 공자가 부자상쟁[父子相爭]으로 도가 땅에 떨어진 부덕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군(衛君) 첩(嬖)을 도와줄까. 아닐까에 대해 슬며시 의중을 떠 본 것인데 자공은 백이숙제를 변명하고 인자하다 평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자가 위 군을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확신 하였던 것이다.

제15장

공자가 말하였다. “거친 밥을 물 말아 먹고 팔뚝을 베개 삼을 지라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는 법이니 외물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마치 뜬 구름과도 같다.”

[원문]
子曰 飯蔬食에 飲水하고 曲肱而枕之라도 樂亦在其中矣니라 不義而富且貴는 於



我에 如浮雲이니라.[자왈 반소식에 음식하고 곡평이침지라도 락역재기중 의리니 불의이부차 귀는 어어에 여부운이니라.]
[이해]

성인의 본심은 하늘의 이치에 일체를 이루고 있어서 비록 고란이나 빈궁에 처한다 해도 그 즐기는 바를 고치지 않음은 물론 울바르게 얻어지는 부귀가 아니고는 뜬 구름처럼 부질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제16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나에게 몇 년의 세월을 보태주어서 오십년 정도를 역경(易經)을 배울 수 있게 한다면 가히 큰 과오가 없을 것이다.”

[원문]
子曰 可我數年하여 五十而學易이면 可以無大過矣러라.[자왈 가야수년하여 오십이화역이면 가이무대과의러라.]
[이해]
원문 오십이화역[五十以學易]은 이설[異說]이 많지만 오십부터 역경을 공부할 수 있다면으로 풀이하는 것은 실체모순이 많다. 공자가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고 한 것은 모르긴 해도 아마 역경을 깨우친 데 기인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말년에 이르러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는 잔여분에 세월이 아가움을 개탄한 것으로 판단함이 옳을 성부르다.

제17장

공자(孔子)가 늘 말하는바 요체는 시(詩)와 예(禮)를 지키는 것들에 관해서였는데 모두 이것들을 항상 요체로 삼은 말들이었다.

[원문]
子所於言은 詩書執禮니 皆雅言也시니라.[자소어언은 시서집예니 개어언야시니라.]
[이해]

여기서는 아인[雅言]을 주자[朱子]의 늘 말 하므로 이해하였는데 후자는 정음[正音] 즉 표준어로 해석하여 공자가 시경(詩經) 서경(書經)을 말할 때와 예(禮)를 집행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했고 그 밖에는 고국[故國] 노나라의 지방 어를 그대로 썼다고 주장하는 설(說)을 취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혁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解說 (立教篇)

◆ 性理書에 云(성리서에 운) 五教之目(오교지목)은 父子有親(부자유친)하며 君臣有義(군신유의)하며 夫婦有別(부부유별)하며 長幼有序(장유유서)하며 朋友有信(붕우유신)이니라.

해설: 성리서에 이르기를, “다섯가지 가림침의 조목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性→성품 성, 성리(性理書)⇒인성의 원리를 논하는 글. 中國 宋나라 때의 儒學(유학)의 한 계통. 教→가르침 교, 親→친할 친, 婦→머느리 부, 자이며 부, 別→다름 별, 나눌 별, 幼→어린 유, 序→차례 서, 信→믿을 신

◆ 三綱(삼강)은 君爲臣綱(군위신강)이요 父爲子綱(부위자강)이요 夫爲婦綱(부위부강)이니라.

해설: 삼강(三綱)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의 분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분이 되며,남편은 아내의 분이 되는 것이니라.

◆ 王彘이 曰(왕옥이 왈) 忠臣(충신)은 不事二君(불사이군)이요 烈女(열녀)는 不更二夫(불경이부)니라.

해설: 왕옥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烈女)는 두 자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綱→버리 강, 躄→발레 축, 자취 축. 烈→매울 열, 烈女(열녀)⇒정조(貞



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알맞게 먹어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른게 써야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해야 하며, 의관은 반드시 정제해야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전하고 자상하게 걸어야 하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해야 하며, 일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야 하며, 말을 낼 때에는 반드시 실형 여부를 돌아보아야 하며,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가지며, 일을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응해야 하며, 선(善)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즐겨서 하며, 악(惡)을 보거든 자신의 병인 것 같이 괴어라. 무릇 이 열네 가지는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를 자기의 오른쪽에 써 부쳐 놓고 아침저녁으로 보고 경계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해설: 충자가 말하기를,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한 것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요, 재물을 다름에는 청렴한 것 보다 더 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 忠자(忠子)⇒는 어떤 사람인지 미상(未詳). 치관(治官)⇒벼슬자리에서 다스리는 사람, 막약(莫若)⇒…만 같지 못하다. 평(平공평할 평, 편할평, 바를 평)

◆ 張思叔座右銘에 曰(자사숙좌우명에 왈) 凡語(범어)를 必忠信(필충신)하며 凡行(범행)을 必篤敬(필독경)하며 飲食(음식)을 必節儉(필신절)하며 字劃(자획)을 必楷正(필해정)하며 容貌(용모)를 必端莊(필단장)하며 衣冠(의관)을 必整肅(필정숙)하며 步履(보리)를 必安詳(필안상)하며 居處(거처)를 必正靜(필정정)하며 作事(작사)를 必謀始(필모시)하며 出言(출언)을 必顧行(필고행)하며 常德(상덕)을 必固持(필고지)하며 然諾(연낙)을 必重應(필중응)하며 見善如己出(견선여기출)하며 見惡如己病(견악여기병)하라. 凡此十四者(범차십사자)는 皆我未深省(개미심성)이라 書此當座右(서차당좌우)하여 朝夕視爲鑒(조석시위경)하노라.

단장(端莊)⇒단정하고 엄숙한 것. 端→바를 단, 끝 단, 莊→씩씩할 장, 단정할 장. 정숙(整肅)⇒뽀가짐이 바르고 엄숙함. 整→정돈할 정, 肅→엄숙할 숙. 諾→허락 나. 보리(步履)⇒걸음걸이, 步→걸음 보, 履→신발 리(이), 안상(安詳)⇒침착하고 조용한 것, 성질이 꼼꼼하고 자세한 것.

해설: 장사숙의 좌우명에 왈 “무릇 말은 반드시 충성되고 믿음이 있어야하며, 무릇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여